밴쿠버, 공공임대주택의 빠른 공급 위해 허가 절차 개선

https://vancouver.ca/news-calendar/ground-breaking-improvement-from-the-city-will-help-build-social-and-rental-housing-faster.aspx

https://vancouver.ca/home-property-development/addressing-the-permit-backlog.aspx

https://vancouver.ca/news-calendar/additional-cuts-to-permitting-red-tape-supports-business-recovery.aspx

캐나다 밴쿠버시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공공시설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밴쿠버 시의회는 최근 몇 년간 건축·개발 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행정 처리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2021년 봄에 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허가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도시·관리 TF를 설립하였으며, 6월에는 주택 건축 허가에 걸리는 시간 중 1만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일련의 개선안을 승인하였다.

이어 9월에는 공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과 필수 인프라, 문화시설에 대해 빠른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안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는 ▲공공주택(Social housing) ▲안전한 임대주택(Secured market rental housing) ▲예술가 스튜디오, 커뮤니티센터, 공동체주택(Neighbourhood house),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문화시설 ▲학교, 병원, 보육시설이다.

한편 시는 10월부터 개발, 건축 프로젝트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사와 참여 기업의 회복에도 힘쓸 방침이다. 시는 ▲허가에 드는 비용 절감 ▲기업의 상업공간 이용 및 개선에 유연성 부여 ▲허가 절차 중 3,800주 절약을 목표로 용도변경 등 절차 축소, 온라인 허가신청 활성화 등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밴쿠버 임대주택
출처: 밴쿠버시 홈페이지. https://vancouver.ca/news-calendar/ground-breaking-improvement-from-the-city-will-help-build-social-and-rental-housing-faster.aspx